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전문가들, “9월에는 금리 인상 일시 중지”
- S&P: 7월 미 제조업 PMI 생산량과 신규 주문, 2년래 최저치
- Yahoo: 7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8개월째 연속 위축... 46.4%
- Bloomberg: 미국 채용 공고,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

[미국 금융]

- FRB: “미 기업 대출 점점 힘들어져”
- WSJ: 실적 시즌에 증시 상승 위협받아
- WSJ: 올해 대형 파산 빨리 늘어

[부동산]

- WSJ: 외국인 미 주택 구매, 사상 최저치 보인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Uber, 매출 14%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둔화
- WSJ: 패스트 패션 소매업계 “수선으로 이미지 개선 노린다”
- CNN Business: Bed Bath & Beyond, 다시 돌아오다
- Bloomberg: 테슬라, 세미 트럭 충전 루트 구축 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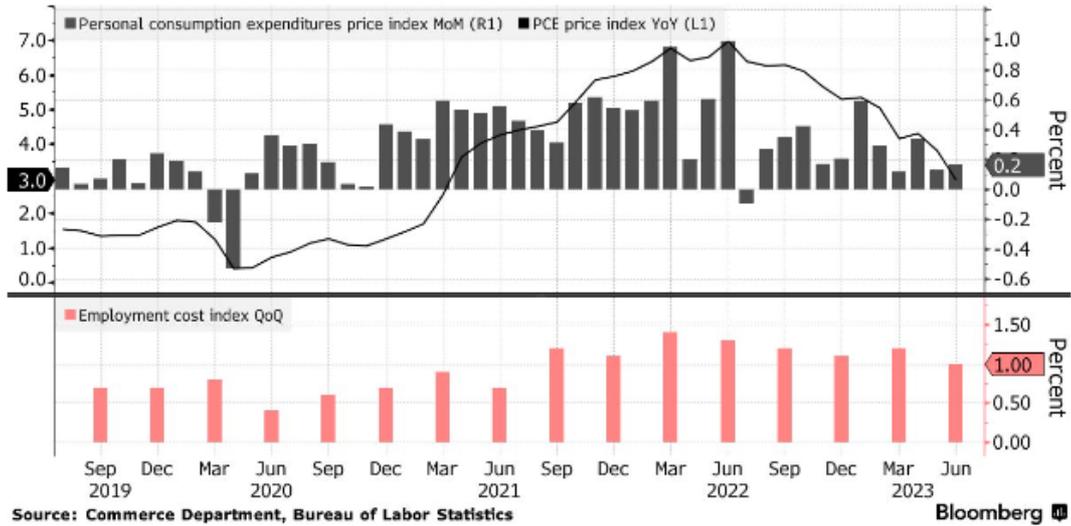
Bloomberg: Wall Street Economists Are Looking at a September Rate Pause

전문가들, “9월에는 금리 인상 일시 중지”

- 연준의 파월 의장은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놓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5분의 1 정도만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 연준의 향후 경제 지표를 주시할 예정인데 현재 인플레이 둔화, 소비 지출 완화, 임금 상승 압력 감소 등이 다음달 일시 중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부터 양일간의 회의 예상전에 인플레이 수치 감소, 대학 학자금 상환 시행 등 역풍이 불 경우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보류해야 할 이유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US Inflation, Wages Cool

Fed-favored metrics have both eased in recent months



Bloomberg 기사

S&P Global: PMI at lowest for two years as output and new orders fall in July

7월 미 제조업 PMI 생산량과 신규 주문, 2년래 최저치

- 요지: 수요 여건이 약화되면서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노동인력과 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계절 조정된 수치의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지수(PMI)는 7월에 52.2를 기록, 6월의 52.7에서 하락했다.
- 이 수치는 2년만에 최저치. 생산량 감소는 주로 고객 수요 약세와 신규 주문의 추가 감소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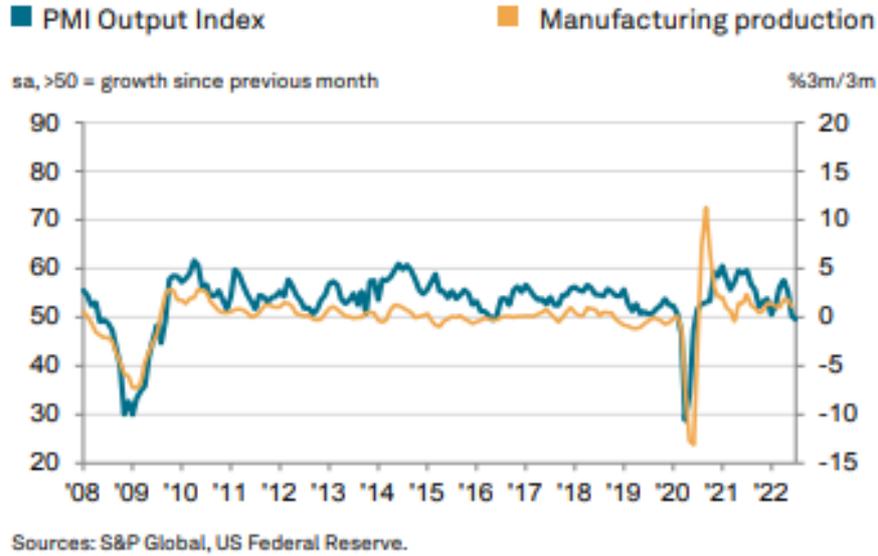
US Manufacturing PMI

sa, >50 = growth since previous month



Source: S&P Global.

Data were collected 06-26 July 2022.



S&P 기사

Yahoo Finance: Manufacturing PMI® at 46.4%; July 2023 Manufacturing ISM® Report On Business

7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8개월째 연속 위축... 46.4%

- 오늘 발표된 ISM 관련 지수에 따르면 28개월 동안 연속해서 성장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의 경제 활동이 그 이후 연속해서 8개월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7월 제조업 PMI는 46.4%로 6월의 46%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 신규주문 지수는 6월에 45.6%에서 47.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위축 범위에 있다. 물가지수는 6월의 41.8%에서 42.6%, 수주 잔고는 38.7%에서 42.8%로 늘었다. 고용지수는 48.1%에서 44.4%로 오히려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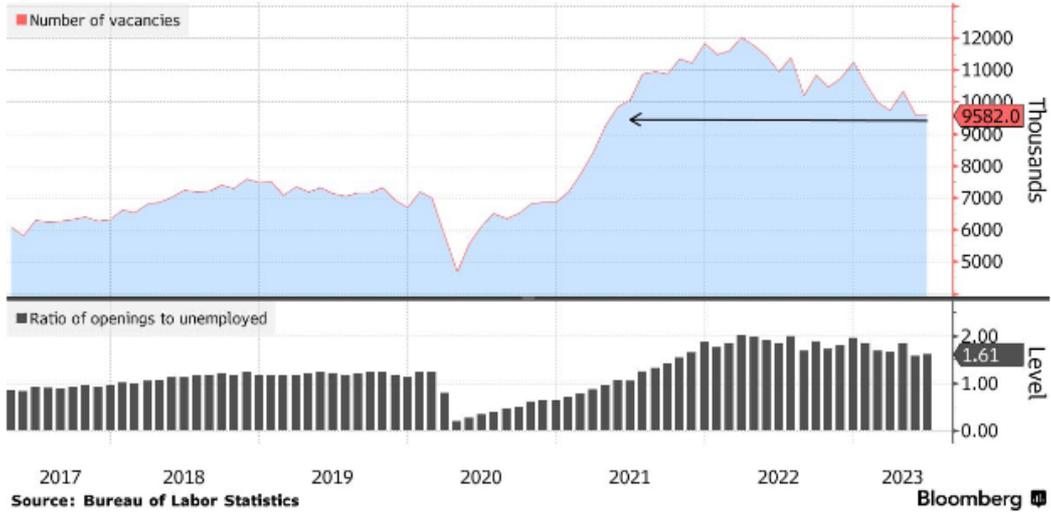
Yahoo 기사

Bloomberg: US Job Openings Fall to Lowest Level Since April 2021

미국 채용 공고,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

- 6월 미국 채용 공고가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 이는 노동 시장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화요일 미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에 구할 수 있던 일자리 수가 960만 개로 줄었다.
- 고용은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해고 역시 작년 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직원 해고를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 Job Openings Fall to Lowest Since 2021 Closely watched ratio of vacancies to unemployed was little chan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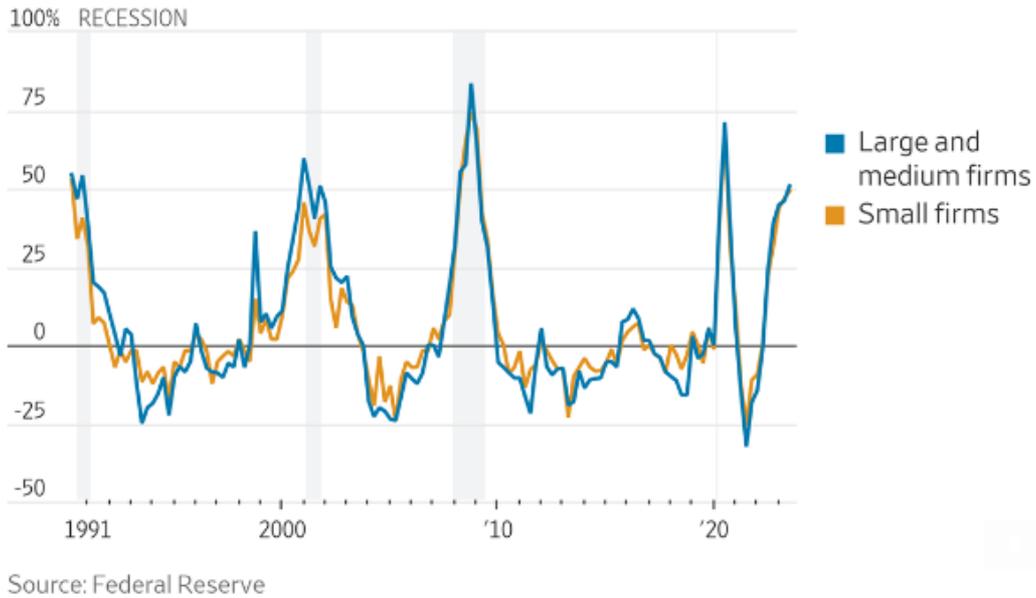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FRB: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s “미 기업 대출 점점 힘들어져”

- 미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연준에 보고하기를 올해 2분기에 대출 기준이 강화되어 상업 및 산업 대출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 또한 연준의 선임 대출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답했다는 것. 한마디로 기업에 주는 신용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비즈니스 활동에 제동을 걸고 인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향해 갈수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에 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Net percentage of domestic banks tightening standards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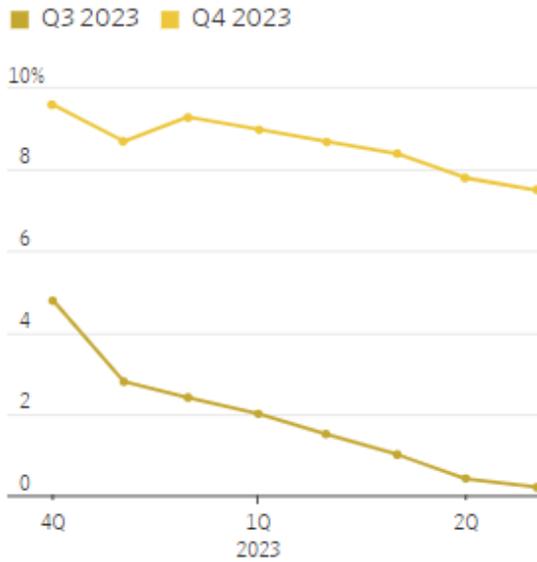
FRB 기사

WSJ: Earnings Season Threatens Lofty Stocks

실적 시즌에 증시 상승 위협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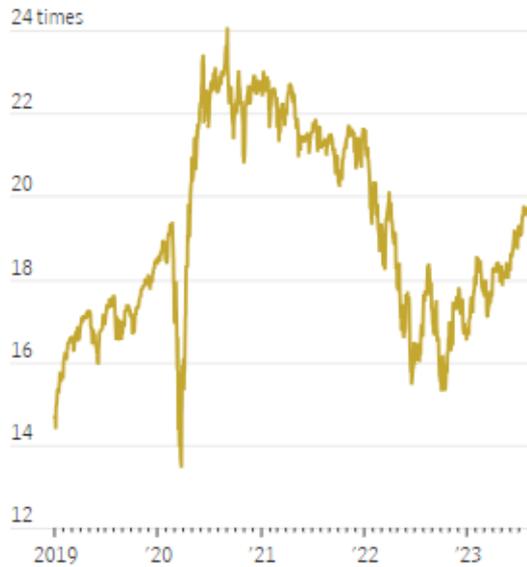
- 예상보다 탄력적인 경제로 인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 S&P 500 지수는 20% 상승에 근접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 상승했다.
-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 기업 이익은 감소했다. FactSet에 보고된 실적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2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분기 수익 감소이자 3분기 연속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수익 기대치도 하락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연초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에 거의 5%, 4분기에 거의 10%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약 0.2%와 7.5%의 증가 예상으로 크게 줄었다.

Consensus estimates for S&P 500 quarterly earnings year-over-year change



Source: FactSet

S&P 500 price/earnings, next 12 months



Source: FactSet

WSJ 기사

WSJ: Big Bankruptcies Rise at Faster Pace This Year

올해 대형 파산 빨리 늘어

- 요약: 부채나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챕터 11 건수와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챕터 11 신청 건수를 합쳐서 6월까지 총 82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29건에서 증가했다.
- 파산 원인과 관련해 올해 기업 중 일부는 비용 증가와 공급망 중단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았다.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던 정부 보조금도 거의 고갈된 상태가 되었고 금리 상승은 이미 파산에 처한 기업들의 도산을 앞당겼습니다.
- 특히 전체 파산건의 20% 이상이 의료 관련 기업으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회사, 의료 공급업체, 병원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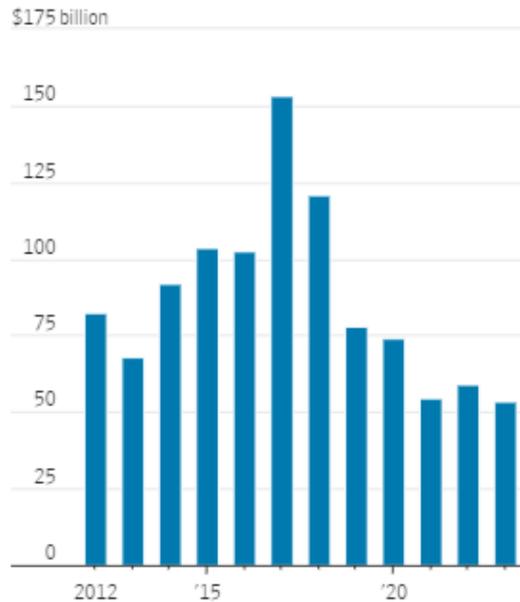
WSJ: Foreign Purchases of U.S. Homes Slump to All-Time Low

외국인 미 주택 구매, 사상 최저치 보인다

-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매가 6년 연속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개선 조짐도 보이고 있다.

-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미국 주택 구매가 전년 대비 14% 감소한 8만 4천 6백 채를 기록했다.
- 이들이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규모는 9.6% 감소한 533억 달러, 201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이다.
-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주택 가격 상승, 제한된 주택 판매 재고, 달러 강세 등 때문이다.
- 하지만 외국인 주택 구매는 같은 기간 미국 기존 주택 판매보다 덜 감소했다. 외국인 구매자는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인 구매자에 비해 모기지 이자율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Purchases of U.S. residential real estate by foreign buyers



Note: Data for 12-month period ended in March
Sourc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Uber Posts 14% Rise in Revenue as Growth Slows

Uber, 매출 14%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둔화

- 우버가 오늘 매출이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팬데믹이 완화된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이다.
- 우버의 주요 서비스인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는 팬데믹 이후 반등했다. 팬데믹 초기에는 차량 호출이 급감했지만, 백신이 보급되면서 우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
- 이번 분기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부문은 차량 호출로, 매출이 38% 증가했다. 이를 사용한 고객 숫자는 12% 증가한 1억 3천 7백만 명, 운행 횟수는 23억 건을 기록했다. 음식 배달도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 하지만 배송 서비스는 팬데믹 이후 배송 속도와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30% 감소했다. 또한 우버는 운전자 영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출 때문에 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NYT 기사

WSJ: Fast Fashion Aims to Mend Its Image With Repairs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 “수선으로 이미지 개선 노린다”

- H&M, 유니클로, 자라 등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옷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헌 옷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 자라는 올해 일부 주요 시장에서 수선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니클로는 여러 매장에 수선 스튜디오를 추가했다. H&M이 소유한 Cos는 고객이 손상된 옷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Bed Bath & Beyond is back from the dead Bed Bath & Beyond, 다시 돌아오다

- Overstock은 한 달 전 파산 위기에 처한 Bed Bath & Beyond를 인수했다. 현재 이 회사는 Overstock이란 이름을 버리고 Bed Bath & Beyond으로 개편했다.
- 오늘 화요일, Overstock 웹사이트는 Bed Bath & Beyond으로 재출시 되었다. 이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 카테고리를 Bed Bath & Beyond의 기존 소비자 선호도와 통합하려는 것이다.
- “Overstock의 모든 카테고리가 전환되고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Overstock CEO Jonathan Johnson이 말했다.
- “사이트에 6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했다”며 “새로운 제품 중 상당수는 기존 소비자들이 Bed Bath & Beyond에서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esla Wants to Build a Semi Truck-Charging Route From Texas to California

테슬라, 세미 트럭 충전 루트 구축 계획

- 테슬라에 따르면, 텍사스 남북 국경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의 루트를 따라 9개의 전기 세미 트럭 충전소를 세우기 위해 미국 정부에 약 1억 불을 요청

했다.

- 이 계획이 승인되면, 테슬라는 미국 최초의 충전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또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전기 트럭 운송과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지역 트럭 운송이 가능해진다.
- 미국은 오랫동안 화물 운송에서 상업용 트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보조금을 감독하는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청서를 검토하는 중이며, 올해 말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lectric Semi Charging Route

Tesla's proposal for a zero-emission trucking corridor.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고금리도 힘든데...미 은행, 하반기 대출 문턱 더 높아질듯

연준,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하반기 대출기준 더 강화"

미국에서 고금리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 심사도 한층 깐깐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은행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들은 지난 2분기(4~6월)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했다고 답했다.

즉,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조건을 엄격히 평가하거나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대출한도를 낮췄다는 의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